



광산경찰, 전동킥보드 안전문화 정착 캠페인

광주광역시 광산경찰이 호남대학교 교직원 및 재학생들과 함께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사진)

지난 24일 광산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께 호남대학교 정문 앞에서 전동킥보드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호남대학교 교직원 및 재학생들과 함께 합동 캠페인을 시행했다.

이날 캠페인은 최근 증가하는 전동킥보드 사고 예방을 위해 2인 이상 탑승금지, 원동기장치 이상 운전면허 필수, 음주운전 금지 및 안전모 미착용자 대상 안전모 씌워주기 등 이용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자체 제작 홍보 전단지 및 홍보물품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모를 배포하며 교통 안전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정경호 광주광산경찰서장은 "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 및 단속 등 교통안전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철 기자



광주시, '외국인주민협의회' 개최

광주광역시시는 지난 26일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 12개국 출신 외국인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주민협의회'를 열고 외국인지원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사진)

외국인주민협의회는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결혼이민자, 재외동포, 국가별 커뮤니티 대표 등 12개국 출신 외국인 주민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협의회에서는 광주광역시가 시행하고 있는 △미등록 이주아동 의료비 지원사업 △산업단지 찾아가는 한국어교실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공모선정 등 외국인주민 지원사업과 함께 지난 2월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 문을 연 외국인 전용 금융센터를 소개했다.

또 5월24일 열리는 '제18회 세계인의날 기념행사' 계획을 공유하고, 다양한 외국인주민정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정상이 기자



광주 서부경찰, 피싱 피해 최소화 은행원에 감사장

남다른 눈썰미로 보이스포싱 피해를 최소화한 은행원이 경찰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았다. (사진)

지난 24일 광주 서부경찰은 농협은행 양동지점 직원 A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보이스포싱 조직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3억4800만원의 거금을 송금하던 피해자 B씨의 모습을 수상히 여겨 즉각 지급정지 조치했다.

이에 따라 1억원에 달하는 피해액이 예방됐다.

박종열 서부경찰서장은 "은행직원의 신속한 대처 덕분에 보이스포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피싱 범죄 수법이 교묘해지는 만큼 금융기관과 시민들의 주의가 중요하다. 경찰은 피해 예방과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준명 기자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여수서 봉사활동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는 최근 전남 여수시 금오도와 화태도 일대에서 26명의 봉사원들과 함께 ESG 친환경 프로그램 '꽃을 심다' 봉사활동을 전개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사진)

이번 봉사활동은 세계 최초의 섬 박람회인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와 연계해 기획됐으며 친환경 프로그램 전개를 통해 기후·환경문제 감소를 도모하고, 환경보호 활동에 대한 시민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봉사원들은 여수시 자원봉사 단체인 꽃사모(꽃을 사랑하는 모임)와 협력해 각각 금오도와 화태도 일대에서 썩부쟁이, 구절초, 폐추니아, 제라늄 등 꽃모종 1500여개를 심었다.

하재성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사무처장은 "꽃은 날씨에도 환경을 위해 봉사활동에 참가한 봉사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시간이 지나 꽃이 피면 아름다워질 섬의 모습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정승우 기자



서구,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48곳 지정

광주광역시 서구가 알레르기 질환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예방관리 사업에 본격 나섰다. (사진)

지난 24일 서구는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48곳을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는 각종 알레르기 질환을 가진 아동에 대한 조기 대응 등으로 교육기관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예방사업이다. 이에 서구는 지난 23일 청사 들불홀에서 안심학교로 지정된 기관의 보건·보육교사 50여명을 대상으로 사업 안내와 강연을 진행했다. 교육에서는 양형재 전남대병원 교수가 '알레르기 비염의 이해와 관리'를 주제로 강연하며 조기 치료와 면역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안심학교를 중심으로 알레르기질환에 대한 예방과 관리 체계를 다져 아이와 부모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윤준명 기자



광주 북부경찰, 마약 근절 캠페인 실시

광주 북부경찰 범죄예방대응과는 최근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제1학생마루에서 마약퇴치운동본부 광주지부와 함께 마약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사진)

이날 캠페인은 MZ세대를 겨냥해 마약의 위험성을 전달할 목적으로 보드판 설문조사, 신종 마약의 종류 등을 설명하고 샘플을 관람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됐다.

김용관 북부경찰서장은 "중독범죄의 위험성을 알리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MZ세대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북부경찰서는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중독범죄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승우 기자



민주당 전남도당, 2030세대 청년정책포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지난 27일 영광군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주철현 전남도당위원장, 이개호 국회의원, 남진국 기본사회특위 청년위원장과 청년위원, 영광군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도당 기본사회특별위원회 전남청년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사진)

'청년 사각지대, 현실과 해법'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청년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과 단절된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자는 의지를 반영했다.

이번 포럼은 청년들이 체감하는 다양한 사각지대 문제를 공론화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한 청년 실업, 주거 불안정, 교육 기회 불평등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오지현 기자



광주자치경찰, 4기 빛고을자전거순찰대 출범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24일 시청 무등홀에서 '제4기 빛고을자전거순찰대' 위촉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사진)

빛고을자전거순찰대는 시민들이 자전거타기 취미활동을 하면서 마을 안전 사각지대가 없는지 스스로 살펴보는 역할을 수행하는 시민참여형 협력 치안 시책이다.

이번 제4기 순찰대는 공개모집을 통해 총 47명을 선발, 위촉됐다.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순찰대원 위촉식과 함께 범외방·신고 요령 교육을 실시하고, 순찰장비를 전달했다.

순찰대는 자전거도로와 도심 골목길 등 경찰 활동이 닿지 않는 곳의 노후·파손된 방법 시설물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개선을 요청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사건·사고를 발견하면 112, 119 등에 즉시 신고하는 활동도 진행한다. 정상이 기자



광주청년일자리스테이션 상무, '진로 손금과 버꾸' 성료

광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위탁 운영하는 광주청년일자리스테이션 상무센터는 최근 청년들의 진로 탐색과 자기 이해를 돕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진로 손금과 버꾸(버킷리스트 꾸미기)'를 성황리에 운영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사진)

자기 탐색과 목표 설정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기획된 이번 프로그램은 사전 모집 시작과 동시에 빠르게 마감될 정도로 큰 관심을 모았다.

특히 진로 손금은 사주 명리학을 현대적 관점에서 재해석해 청년들이 자신의 성향과 강점을 이해하고, 적합한 진로 방향을 탐색할 수 있도록 돕는 세션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함께 운영된 '버꾸' 프로그램은 감성 다이어리 꾸미기 형식으로 진행돼 참여 청년들이 직접 자신의 인생 목표와 버킷리스트를 시각화하며 진로에 대한 동기와 의지를 다지는 시간이 되었다. 스티커, 마스킹 테이프, 컬러펜 등 다양한 문구 키트를 활용해 개인의 감정과 꿈을 표현하는 과정이 인상 깊었다는 참가자들의 후기도 이어졌다.

조유근 센터장(광주대회계세무학과 교수)은 "앞으로도 청년들의 진로 고민을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며 "자기 이해와 미래 설계를 동시에 돕는 콘텐츠가 청년들의 진로 여정에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